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김상희 위원, 윤종필 위원, 장정숙 위원, 윤소하 위원이 공동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전문가가 초청돼 강연했다.

### 커뮤니티케어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체계이다.

### 정부 추진계획

정부는 올해 1월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내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9월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2월에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선도사업을 개시하고 추후 전국사업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 발족

대한간호협회는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를 지난 8월 9일 발족시켰다. 협의체는 대한간호협회 16개 시도간호사회 및 112개 시·군·구 분회, 10개 산하단체 및 관련단체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앞으로 커뮤니티케어 관련 법령 개정 활동,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간호사 교육, 홍보활동, 학계·시민단체·지역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 초고령사회 대비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도입 시급

### 핵심인력 간호사 역할 중요 ... 간호협의체 풀뿌리 네트워크 활용

#### 국회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 열려

이명수, 김상희, 윤종필, 장정숙, 윤소하 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 ... 보건복지부 후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해야 할 때이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간호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 일본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정책토론회가 8월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김상희 위원, 윤종필 위원, 장정숙 위원, 윤소하 위원이 공동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개회사를 한 김상희 국회의원은 "커뮤니티케어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선 간호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모아진 고견들을 경청하고, 향후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장정숙 국회의원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정책방향과 세부내용을 우리 현실에 맞게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돌봄 수요를 채우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간호사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길 바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모인 지혜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커뮤니티케어는 병원과 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국가 중심에서 지역 주도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요양-복지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통합적·연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때 지역사회 간호사는 상담과 교육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삶의 보람을 찾고, 건강 증진, 자아실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사회 간호사의 강점은 주민의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이라며 "대한간호협회의 112개 시·군·구 분회가 참여하는 간호협의체의 풀뿌리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커뮤니티케어가 보다 안정적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현재 의료법에 의한 가정간호사업,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간호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분절된 법·제도로 인해 통합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인 만큼 향후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훗타 사토코 게이오대 대학원 건강메니지먼트연구원 교수와 초청돼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에서 지역공생사회로' 주제로 강연했다. 지역포괄케어 전문 커뮤니티케어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회 위원, 지역공생사회연구회 이사, 의료개혁추진위원회 사무국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훗타 교수는 강연을 통해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대비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개호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

민하면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포괄케어는 중증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돼도 살고 있던 지역사회에서 자신다운 삶을 마감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간호, 요양, 예방, 주거, 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이라면서 "시정촌(기초자치단체)과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1991년 방문간호제도화됐으며, 담당간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스테이션'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 모델이 등장해 운영되고 있다. △방문간호와 개호 서비스를 통합 또는 연계한 '24시간 정기방문·상시대응형 방문간호 및 개호'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정보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지원시설 '생활보건실' △데이케어, 숙박, 방문간호가 가능한 '간호소규모다기능형 재가개호' △말기환자가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기즈 안지르지원

센터' 등이다. 훗타 교수는 "일본은 지역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지역공생사회란 지역주민과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나의 일'처럼 참여하고, 사람과 사람 및 사람과 자원이 세대와 분야를 넘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1차 예방(사회 참여), 2차 예방(최악 늦추기), 3차 예방(중증화 늦추기)과 함께 지역환경 및 사회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0차 예방', 지역에서 연계 맺기인 '또 하나의 예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훗타 교수는 "지역사회 간호사는 주민의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 강점이며, 주민들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관계 속에서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지역주민의 행복 중심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정규숙·주혜진 기자



## 을지대학교의료원 신입·경력 간호사 모집

을지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 을지병원과 함께 할 열정 있는 우수인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을지대학교 의료원과 함께 희망차게 시작하십시오!

### | 응시자격

-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 경력간호사

### | 채용인원

- 을지대학교병원 : 000명
-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 000명

### | 전형일정

- 가. 지원서 접수기간 : 2018.09.03(월)~09.15(토)12시
  - 지원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www.emc.ac.kr)
  - 우편, 방문접수
-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04(목), 홈페이지 게시
- 다.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기간 : 10.15(월)~10.19(금)
- 라. 전형일정 중 나, 다 항목은 병원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 합격자중 채용 신체검진에서 부적격한 문제 발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지원서류

- 가. 지원서 1부
- 나.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신규간호사 (평점 및 전체석차 필히 기재)
- 다. 간호사 면허증 : 경력간호사
- 라. 양 병원 중복지원 불가
- 마. 모집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 시 180일 이후 파기되며 반환을 원할 경우는 반환해 드립니다.

### | 주소 및 문의처

- 을지대학교병원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서로 95
  - \* 문의전화 : 042-611-3737, 3732
  - \* 메일주소 : 김인희 inhee9@eulji.ac.kr
-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 \* 문의전화 : 02-970-8184, 8186
  - \* 메일주소 : 김옥화 ok318@eulji.ac.kr